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저장경찰대학교	기숙사비	81/한 학기
파견지역	중국 저장성 항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 ) 분할납부(   )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8.2.26.~2019.6.29	기타비용	

##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남	학 년	2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 7 . 6

파견자 :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2019년 1학기 저장경찰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기 전 본인은 △△△학과의 학생으로서 이전에 같은 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선배들을 통해 수업방식과 난이도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 갈 수 있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함께 가게 되는 교환학생들의 전체 hsk 평균 실력을 바탕으로 입학시험을 본 후 상급자, 중급자반을 각각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간 이번 학기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본인과 △△△학과 학생 3명 중 4명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학생 수가 적은 이유로 분반은 하지 않게 되었으며 수업 난이도 또한 입학시험과 관계없이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의 평균 실력인 hsk5급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본인의 중국어 실력과 수업 진행 난이도 사이의 격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 수업을 따라가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총 18시간으로 작문과 문법 수업(6시간), 듣기와 말하기 수업(6시간) 그리고 중국의 문화 수업(6시간)을 들었습니다. 작문과 문법, 듣기와 말하기는 저장경찰대학교의 지도교수가 아닌 외부 초청 강사가 수업을 도맡아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문화 수업은 본 학교의 지도교수가 직접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문과 문법 수업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hsk5급의 교재를 사용하였고 책 속의 지문을 읽고 그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면 강사가 오답풀이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수업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재로 진행하였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법한 대화문을 듣고 역할을 나누어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문화수업은 교재 필요 없이 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수업관련 ppt를 만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과제의 양은 적당하였지만 매번 발표가 있어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문법과 작문 수업의 과제는 보통 책의 문제를 풀어오는 것입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중국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2~3분 정도로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문화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를 중국과 비교하여 3분가량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저장경찰대의 위치는 항저우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서호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부터 천탕강을 건너 지하철로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학교부근에는 지하철 4호선역이 2개나 위치해 있어 시내를 돌아다니기 매우 용이했습니다. 현재에는 지하철 역을 학교 앞에서 바로 추가로 만들고 있어 이후에는 교통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학교 바로 앞에 하나 위치해있습니다. 기후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말에 학교에 도착하였는데 한국보다 다소 온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과 비슷한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여름도 30~35도 사이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덥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약간 습하고 흐린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는 식자재, 생활용품 등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 한국의 이마트, 홈플러스와 유사한 브랜드의 우메이라는 슈퍼마켓이 있으므로 물건을 사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중국의 현지인들도 많이 들리는 각양각색의 음식점들도 우메이 건물 지하와 1층에 즐비해 있어 가끔 학교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나와 식사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오면 바로 앞에 중의약대가 있는데 저장경찰대학교 구내 식당보다 음식 종류도 많고 맛도 좋으며 가격도 저렴하기에 종종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 학교 바로 뒤에는 라지지에라는 거리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야시장이 펼쳐져 간식거리를 사먹기에 좋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81만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기숙사 내에서 흡연금지, 드라이기와 커피포트 사용 후 코드 뽑기, 에어컨과 TV 등 전자제품 사용 후 전원 끄기, 실내 취사 금지		
주요사항	방음이 잘 되지 않으므로 옆 방간 소음 발생 시 다 들림 따라서 늦은 밤에는 큰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1층에 정수기가 위치해 있지만 밤 10시가 되면 정수기 전원이 꺼짐 따라서 미리 물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음.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2인 1실의 기숙사로 내부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피포트와 컵 2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자신의 원하는 온도에 맞춰 상시 사용 가능합니다. 침대는 2개가 있으며 위 사진은 넓은 공간 활용을 위하여 두 침대를 붙여 사용한 모습입니다. 앞 테이블은 한 사람 정도가 공부할 수 있는 넓이이며 의자는 한 개가 있습니다.

옷장은 앞, 옆 2개가 있으며 넓은 편으로 많은 의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에 있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흰 수건 2개를 제공해주며 주의할 점은 이는 본인이 직접 빨래를 하며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코드를 꽂을 수 있는 칸은 2칸이 있어 헤어드라이기를 화장실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화장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보충해줍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학교안에 있는 매점으로 과일, 간식류, 간단한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식당카드를 겸용하여 계산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면류, 밥류, 국물이 있는 요리 등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학교에서 주는 식당카드를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결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끝에는 커피, 빵을 파내하는 작은 제과점도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식사시간에는 줄을 길게 섭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타오바오라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구매한 물품은 이 곳에서 찾아 수령할 수 있다.  
학교 정문 우측에 위치해 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건물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정수기이다.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정수기 전원을 차단하기 때  
때문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물을 받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수기 주변이 습하여  
모기가 많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사 진 첨 부



## 교환학생 파견 수기

교환학생 활동 기간 중 중국의 규모가 큰 명절 중 하나인 청명절을 맞이하여 일주일가량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기 방학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여행 계획표를 제출 후 학생들이 여행을 다녀 올 수 있는데 본인은 혼자 서안으로 3박4일 1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항주에서부터 서안까지 가는 수단으로 열차를 이용하였는데 가는 데만 18시간을 타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차를 오랫동안 타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서안은 중국에서도 자랑하는 유일무이한 역사도시로 병마용, 서안장벽, 대안탑, 서안화산, 화청지 등 긴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역사 건축물을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혼자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막상 다녀와 보니 별 것 아니고 매우 뜻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명절에 학교에서 방학을 한다면 꼭 한번 항저우 이외의 도시로 여행을 다녀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의 경제 도시로도 유명한 상하이는 학교에서부터 고속열차로는 1시간 일반 열차로는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 기간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곳이므로 주말을 포함해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후 모든 시간이 자기 계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 초기에는 혼자 항저우의 이 곳 저 곳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중국인과의 대인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중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있어 자신이 없던 필자는 어떻게 해야 중국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였고 말을 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중국인 친구를 사귄다 수 있는 환경을 누린다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기회라 인지하니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보니 막상 친구들도 미소를 띄우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곳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성격이 밝고 활발했습니다. 그 덕인지 비록 언어는 잘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 웃으며 그 점을 이해하고 금세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외국인과 친구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틀을 깨니 어느 순간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게임을 하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이 수기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중국인 친구들과 연락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자신이 놀랍습니다. 이제는 그들과의 우정이 본인의 하나의 보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계속 걱정만 하고 부딪혀 보지 않으면 영원히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몸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과 학생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교환학생들은 △△△학과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들까 수업난이도는 HSK5급, HSK3급 수준인 본인에겐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책을 딱 펴니 지문은커녕 지문을 읽고 난 후 푸는 문제 자체도 읽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외부강사인 중국 현지인의 대화도 너무 빨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기에는 매 수업에 짜증과 실증이 났으며 자신감을 잃어 갔고 어떻게 한 학기동안 수업을 따라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지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수업이 점점 쌓이니 선생님의 말씀을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 의도는 이해하고 지문의 중국어도 거의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든 삶든 사방이 중국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니 몰랐던 한자도 반강제적으로 외워지게 되었고 이를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언어는 현지에서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 후 저장 경찰대로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수업난이도가 기존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